

완주군 건축업무 최우수 선정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7개 분야 평가

완주군이 전라북도 주택 및 건축업무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우수 및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9일 완주군은 전라북도가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7개 분야에 걸쳐 평가하는 2016년도 주택·건축 관련 업무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포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별 개별평가에서도 우수함을 인정받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부문에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최우수 기관, 2014~2015년 우수기관 등 4년 연속 주택 및 건축업무에서 상위 수준의 업무추진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완주군은 그동안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신축 및 건축행정을 실현 등을 위해 추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

이자 지원, 저소득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건축행정 건설화 업무, 공동주택 운영관리 등에서 탁월한 업무추진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우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지를 위해 주택 개·보수, 수선유압대주택 제공,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발공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445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수급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해 군민과 타 시·군 입주민의 경제부담 해소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했다.

특히 완주군 자체사업으로 생활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과 생활민원 긴급수리 지원반을 운영해 총 4000여가구의 주거편의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인 '살맛나는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해 아파트 주민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아파트 공동체문화 복원에 노력했다.

이외에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대표자·임원 등의 선거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지원해 이서 이노힐스, 용진 대영, 봉동 벽산 e-슬렌스힐 등 3개 아파트에서 선거를 실시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주택·건축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있는 지원과 보다 획기적인 시책발굴과 업무연찬으로 군민의 삶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 매출 200억원 달성

주말난장·토요장터 등 전국 14개 지역 100여 개소

무주군이 지난 11월 말 현재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매출 2백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 1백억, 올해 목표 대비 50억 원을 초과 달성한 수치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농업소득 분야 농업마케팅을 강화시켜 얻은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무주군이 관내·외,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과와 천마, 옥수수, 머무와인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2백억 1천 9십여만 원으로, 1,332농가가 직접 참여했던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와 주말난장, 토요장터 등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

역 1백여 개소에서 펼친 직거래장터, 롯데백화점과 서울, 부산지역의 코엑스, 서울고속터미널, 김포 현대아울렛, 롯데월드 지하상가, 인천 그랜드백화점, 서울지역 이마트 등에서의 상설판매, 그리고 반딧불사이버장터 등의 온라인 쇼핑몰이 주 판매처가 됐다.

사과와 배추는 홍콩과 대만, 베트남 지역의 수출 길을 열어 세계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12월 부산 정관읍에서의 김장절 직거래장터가 더 예정돼 있어 매출은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반딧불 농·특산물 판

매 증대를 위해 판로 확보에 우선 주력했으며 신규 농가들의 참여를 늘려 거래 품목과 수량을 다양화하고 소포장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군 농업소득과 농업마케팅 강령관 담당은 "전국을 다녔으면 반딧불농·특산물에 대한 인기가 정말로 넘쳐나는 것을 느낀다"며 "농가들이 직접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는 맛과 품질, 가격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매출 증대에 한 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판로 개척과 판매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시장변화에 주목해 모바일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꽃감축제 '감주GO 흥주GO' 주제로 개최

우수한맛·품질 직접 경험

완주 꽃감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제3회 완주꽃감축제가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완주군 운주면 장선천 둔지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완주꽃감축제는 완주군

이 주최하고, 완주꽃감축제제전위가 주관하며, '감주GO 흥주GO'란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꽃감으로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꽃감 생산에는 일가견이 있는 19개 농가가 최고의 꽃감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17일 오후 3시 개막식을

비롯해 감 탐 썰기, 꽃감끼로 단장하기, 꽃감 만들기, 꽃감인형 만들기, 감나무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 꽃감 요요제를 비롯한 문화공연은 물론, 버섯 등 완주 농특산물로 꾸며진 판매장과 먹거리 판매장도 운영될 계획이다.

/원주=이종복기자

진안고추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정령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취약계층 종합검진 의료지원 운영

암·내·외과 검진 등 총 103개 검진항목 제공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마을지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등 마을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종합검진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검진 의료지원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추진한 국립공원 명품마을인 '신선명품마을'(무주군 설천면 두길리)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자 전원에게 실시한 것으로 대전 소재 전문의료기관인 둔산병원(삼영의료재단)에서 진행되었다.

이들 독거노인 등 마을주민 47명은 덕유산국립공원이 추진한 프로그램에 따라, 각종 암 검진 등 내·외과 검진 뿐 아니라 치과, 안과 등 총 103개에 걸친 검진항목에 대하여 개인당 80만원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검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동이 불편한 취약한 노인들과 교통이 불편한 현지 사정을 고려, 병원 버스를 이용하여 자택에서 병원까지, 진료 후 다시 자택으로 모시는 교통편의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9일 용담호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용담호로 유입되는 하천 중 우기철 진안읍 시가지와 농경지에서 다량의 비점오염원의 배출로 수질오염도가 높은 진안천의 수질 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인 진안읍 운산리 일원에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운산 인공습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안군 운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79억여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담호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진안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전북도민의 깨끗한 용담호의 맑은 물 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날 개최된 주민설명회에는 진안읍 이장단, 토지구 등 100여명이 참석해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군민의 관심을 드러냈다.

진안군은 쓰레기를 안태우고, 안 버리고, 안 묻는 쓰레기 3NO 운동 추진과 제조제 안쓰는 친환경우렁이농법, 친환경제설제 전면도입, 행정과 군민 자율수질관리 등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용담호는 꾸준히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안군은 전형적인 농촌도시 지역 특성 상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 오염된 하천수의 용담호 유입으로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진안군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정자천, 구량천 등 용담호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자봉센터 자원봉사자대회

완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직무대행 이상운)는 지난 9일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올 한해를 결산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격려 및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2016 완주군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또한 박성일 완주군수와 정성모 군의장, 도·군의원, 윤덕임 완주교육장, 김기원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고, 안호영 국회의원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자원봉사자 대회는 가족봉사단 송등수 단장과 행복나눔 봉사단 신현하 단장으로부터 올 1년 동안의 봉사활동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자원봉사 홍보영상, 개회식, 우수 봉사자 표창과 문화공연, 레크레이션 화합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1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군수표창, 군의장상, 교육장상, 국회의원상 등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성일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따뜻한 완주, 건강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재능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늘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도 어두운 지역을 위해 커다란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농업인대학 수료식

제14기 장수군 농업인대학 수료식이 지난 8일 최용득 장수군수, 유기홍 장수군 의장, 수료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누리전당에서 열렸다.

장수군 농업인대학은 사과, 오미자, 토마토 양액, 한우 4과정으로 2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50여회 200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운영했으며 이날 98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특히 교육기간 자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김현욱 교육생이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으며 광재원 교육생 등 19명이 개근상을 수상했다.

김현욱 교육생은 "농업인대학 토마토반 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통해 토마토재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수료 소감을 밝혔다.

장수군은 지역의 주요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17년도 제15기 농업인대학 운영을 앞두고 오는 1월 중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통해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공공비축미곡 톨백 수매

진안군은 지난 9일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톨백(800kg) 수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톨백 수매 확대를 위해 올해 백은농협에 톨백 보관창고 신축을 지원해 보관 여력을 확보하고 지난 7일 첫 수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톨백 수매에 들어갔다.

올해 톨백 매입량은 전년도 579톤에 비해 1,406톤이 증가한 1,985톤으로 전체 수매물량의 43.1%를 톨백으로 수매한다.

군 관계자는 "톨백 수매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 및 경비절감으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톨백 저울 및 보관창고 시설 개·보수지원 등 톨백 수매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우체국 소외계층 온정 손길

무주우체국(국장 김현순)은 행복나눔 '봉사단이 지난 9일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날 봉사단은 무주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따뜻한 겨울나기 우체국 행복나눔식을 통해 겨울나기용품 전달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 어르신 김00(무주읍 대치리, 67세)씨와 유00(무주읍 당산리, 85세)씨에게도 물품전달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도 되어드리"며 마음의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